

#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민경인\*, 조성심\*\*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Kyung-In Min\*, Sung-Sim Cho\*\*

Shinhan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Professor, Department Social Welfare at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부모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4년제에 재학중인 대학생 250명을 무선표집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25.0을 사용하여 3단 회귀 방식으로 매개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될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상담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부모 애착, 모 애착, 대학생,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examine the goodness of fit and influence of variables in a model that assumes that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has an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It's about verification.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by randomly sampling 250 college students attending 4-year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three-stage regression method using SPSS Win 25.0.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attachment to parents appear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career indecision, confirming that the more a stable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parents is formed, the less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making.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ttachment to parents and career indecision. This shows that the more stable the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 father and mother is formed, the lower the level of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practice and follow-up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College student, career indecision,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본 논문은 경성대학교 민경인 석사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Received 29 Dec 2023, Revised 09 Jan 2024

Accepted 12 Jan 2024

Corresponding Author: Sung-Sim Cho  
(Shinhan University)

Email: chawoo0606@shinhan.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인간이 성장해나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흥미와 적성을 찾고, 이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능력을 키워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진로와 직업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시기로서 진로 탐색 행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와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 및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이 가장 큰 고민임을 보고하고 있고, 중앙일보(2019)에 의하면 유명 취업포털에서 대학생 18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48.6%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최근 통계청(2022)이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의하면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졸자 5명 중 3명이 취업 준비를 이유로 제때 졸업하지 못하고 휴학이나 졸업 유예를 선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졸업 이후의 불안한 미래가 영향을 미치고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데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이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우며, 대학생 시기가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고도로 전문화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이다[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진로 탐색 및 결정은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

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아정체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진로미결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2]. 이처럼 진로 결정에 관한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고 당면해 있는 과제로 이와 같은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방해하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진로미결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대학생의 심리적 애착

애착은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이 가지는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이며, 초기에 형성된 애착 경험이 평생에 걸쳐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아가 생의 첫해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애착 형성이라고 강조했다[3]. 특히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는 애착은 아동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정신적 틀 또는 적응의 단계를 거쳐 인지·정서·동기적인 정신적 내적표상을 형성해 나가고 이렇게 형성된 애착관계를 통해 내적실행 모델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내적실행모델은 애착대상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밀감과 안정감의 조절과 충족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개인적인 잠재력과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개인이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착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실행모델은 진로와 관련된 학습과정의 도식으로 사용되고, 진로탐색 및 직업세계로의 접근 또는 회피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결국에는 진로발달 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4].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자녀간의 안정적인 애착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형성하게 하고, 나아가 진로 발달 및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5], 발달단계에 맞게 자기조절

능력을 정교하게 발달시켜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형을 타인과 세상에 반영하지만,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형성된 부정적인 내적작동모형을 타인과 세상에 반영하여 타인과 세상을 자신을 위협하는 위협한 대상으로 여기고 도피하려 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쉽다고 하였다[3]. 또한 안정된 애착기반을 형성하고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진로 결정에 심리적 불편함을 덜 느끼고 진전을 보이며[6],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직업 세계와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감도 함께 발달시킨다고 하였다[7]. 이렇듯 애착은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고(임지연, 2008), 부모에 대한 애착 변인이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건강한 사회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이렇듯 부·모애착과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관되게 이루어져왔고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도 누적되어있다. 그러나 생애 초기에 형성된 부·모애착관계만을 가지고 진로미결정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부·모애착 이외에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 및 확장은 진로 미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2.2 진로미결정

진로 미결정이란 자기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 만성적 지연 등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어려움을 내포하는 개념을 뜻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9]. 진로미결정에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사람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으로는 진로상담이 필요한 잠정적인 내담자를 선별해내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미결

정자 외에 진로결정자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김봉환, 1997; 장선철, 2004; Lee, 2001). 이와 같이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혼란을 보이면서, 미결정 상태의 사람들을 다 같은 범주의 집단이 아닌, 서로 다른 하위 범주 집단으로 나눠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미결정자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로 미결정은 정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발달적 미결정자와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만성적 미결정자로 구분하게 되었다[10]. 발달적 미결정 상태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 직업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결정의 단계를 연기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만성적인 미결정자는 진로와 관련된 결정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직면하게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도 쉽게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유형의 사람들을 말한다. Salomone(1982)은 이들의 특징으로 높은 수준 불안과 좌절, 낮은 자기 확신과 정체감, 불확실한 자아 존중감, 외적 통제성, 자신의 상황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 등을 들었다.

이처럼 진로 결정 유형에 대한 관심은 진로상담의 실제에 있어 각 유형의 특성 및 개입방안에 따른 상담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요인들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완벽주의란 시도 자체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지니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으로[11], 초기에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측면에서 개인 내적인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보았으나 Frost, Marten, Lahart 및 Rosenblate(1990)은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또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완벽주의 성향을 적용적, 부적응적 기능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게 되었으며(Blatt, 1995; Paker, 1997), 이는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되면서 검증되기 시작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유형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부과되는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아 가치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완벽함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Hamacheck(1978)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부모의 비(非)승인, 비(非)일관적 승인, 조건적 승인이 주어지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데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므로 완벽함을 부모에게 수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비밀관된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형성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모님과 상호작용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완벽하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거야'라는 비합리적 신념이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Hollender(1965)의 이론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수용 받고 싶은 자녀의 요구에 대해 부모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합리하고 비판적인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12].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애착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민성혜와 신혜원(2007)은 어린 시

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학습된 행동으로부터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불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며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하였고, 한미경(2020)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의 경향이 높아지고, 자녀는 스스로에 대해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부정적 정서가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단비와 최바을(2019)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성취 지향적이고,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으로 부가된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 있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형성되는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 관련된 애착 변인이 영향력 있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취약하며 수행에 대한 의심,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 미루기와 같은 특징 등으로 진로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ergara & Aldea, 2006).

최근 김하늬와 손은령(2020)의 연구에서 진로미결정과 관련한 15가지 하위 변인으로 진로성숙, 역기능적 진로사고, 내현적 자기애, 부모애착,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심리적 독립, 진로장벽 등의 관련 변인을 도출하였고, 개인 심리·정서적 요인에 해당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윤초암과 유현실(2017)의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김미소, 이성원, 양난미(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개념 명확성 또는 특성불안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간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부·모 애착과 진로미결정 간의 경로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상정함으로써 진로미결정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방법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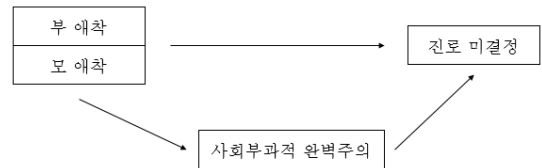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에 따른 가정 및 학교의 환경적 요인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으로 지역을 고루 확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총 250명으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각각 125명이었다. 연령은 18-29세가 247명(98.98%)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2.53세(±2.64)이었다. 거주지역은 경기·인천이 79명(31.6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7명(30.80%), 경상도 43명(17.20%) 등 순이었으며, 제주도 3명(1.20%)으로 가장 적었다. 동거가족은 가족(부모+형제)이 동거하는 경우가 207명(8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척 또는 친구와의 거주가 3명(1.20%)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성장과정 중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231명(92.40%)로 대부분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선택	N	%
성별	남자	125	50.00
	여자	125	50.00
연령	18-29세	247	98.80
	30-40세	3	1.20
	평균, 표준편차	22.53±2.64	
거주지역	서울	77	30.80
	경기·인천	79	31.60
	강원도	7	2.80
	충청도	16	6.40
	경상도	43	17.20
	전라도	25	10.00
	제주도	3	1.20
	가족(부모+형제)	207	82.80
동거가족	친척 또는 친구	3	1.20
	혼자	40	16.00
	어머니	231	92.40
성장과정 중 주 양육자	아버지	6	2.40
	할머니	13	5.2
	합계	250	100

#### 3.2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와 모의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 3.3 측정도구 및 신뢰도

각 변인별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3.3.1 부모 애착척도

부모와의 심리적 애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들의 부·모·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도구를 옥정(1997)이 번안하고 수정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PA-R에서 또래에 대한 애착 안정성은 제외하고 부·모 애착안정성만을 측정하였으며 각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차원 중 걱정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는 등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상호신뢰차원은 10문항(예: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소통과 공감에 대해 측정하는 의사소통 차원은 9 문항(예: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좌절감이나 침체 등 정서적 거리를 측정하는 소외 차원(예: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부정문항(예: ‘부모님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에서는 역채점을 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와 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도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MPS)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SOP),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OOP),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PP)의 1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15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1점에서 7점(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문항에서는 역채점을 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3 진로미결정 척도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Osipow 등(1999)이 개발한 진로 결정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Tak와 Lee(2003)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으로 한국진로미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직업정보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인식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외적장애 등 5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은 ‘내 전공에 적합한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직업정보 부족), ‘현재로서는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필요성인식 부족),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자기 명확성부족),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우유부단한 성격),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외적장애) 등이다. 이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에서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3.4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부모애착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6$ 이며, 부애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0$ , 모애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8$ 로 나타났다. 부애착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929$ , 신뢰감은 Cronbach's  $\alpha=.914$ , 소외감은 Cronbach's  $\alpha=.745$ 이었고, 모애착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927$ , 신뢰감은 Cronbach's  $\alpha=.907$ , 소외감은 Cronbach's  $\alpha=.781$ 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은 Cronbach's  $\alpha=.941$ 이며, 하위요인 직업정보 부족은 Cronbach's  $\alpha=.828$ , 자기명확성 부족은 Cronbach's  $\alpha=.719$ , 우유부단한 성격은 Cronbach's  $\alpha=.833$ , 필요성인식 부족은 Cronbach's  $\alpha=.800$ , 외적장애는 Cronbach's  $\alpha=.766$ 이었다.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Cronbach's  $\alpha=.755$ 이었다.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 3.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부모애착, 진로미결정,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은 기술 통계를 통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부모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부	모	
부·모 애착	의사소통	9	.886	.929	.927
	신뢰감	10	.737	.914	.907
	소외감	6	.855	.745	.781
	전체	25	.856	.950	.948
진로 미결정	직업정보 부족	6	.828		
	자기명확성 부족	4	.719		
	우유부단한 성격	4	.833		
	필요성인식 부족	4	.800		
	외적 장애	4	.766		
전체	22	.94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5	.755		

애착, 진로미결정,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방식을 이용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 4. 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와 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가설에 따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연구대상자의 부와 모의 심리적 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부와 모의 심리적 애착, 진로미결정,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 결과 부애착은 평균 3.54점( $\pm .77$ )이었으며, 하위요인 의사소통은 3.29점( $\pm .93$ ), 신뢰감은 3.74점( $\pm .83$ ), 소외감은 3.56점( $\pm .77$ )이었다. 모애착은 평균 3.81점( $\pm .71$ )이었으며, 하위요인 의사소통은 3.73점( $\pm .85$ ), 신뢰감은 3.97점( $\pm .75$ ), 소외감은 3.67점( $\pm .79$ )이었다. 즉, 대학생들은 부에 대한 애착보다는 모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에서 모가 부모보다 더 높은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은 평균 2.62점( $\pm .79$ )이었으며, 하위요인 직업정보 부족은 2.72점( $\pm .85$ ), 자기명확성 부족은 2.35점( $\pm .83$ ), 우유부단한 성격은 2.88점( $\pm 1.05$ ), 필요성인식 부족은 2.14점( $\pm .93$ ), 외적장애는 2.96점( $\pm .89$ )이었다.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3.85점( $\pm .89$ )이었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부모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특성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부애착	1.36	5.00	3.54	.77
의사소통	1.00	5.00	3.29	.93
신뢰감	1.30	5.00	3.74	.83
소외감	1.17	5.00	3.58	.77
모애착	1.32	5.00	3.81	.71
의사소통	1.11	5.00	3.73	.85
신뢰감	1.40	5.00	3.97	.75
소외감	1.00	5.00	3.67	.79
진로미결정	1.05	4.82	2.62	.79
직업정보 부족	1.00	5.00	2.72	.85
자기명확성 부족	1.00	5.00	2.35	.83
우유부단한 성격	1.00	5.00	2.88	1.05
필요성인식 부족	1.00	5.00	2.14	.93
외적장애	1.00	5.00	2.96	.89
부적응적 완벽주의	1.80	5.93	3.85	.78

### 4.2 부와 모의 심리적 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

#### 4.2.1 부의 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

부의 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버지의 애착은 진로미결정( $r = -.336$ ,  $p < .001$ )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r = -.343$ ,  $p < .001$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미결정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 = .469$ ,  $p < .001$ ).

그리고,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도 양상은 동일하였다(표 4).

(표 4) 부의 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r(p)										
①	1										
②	.921* (.000)	1									
③	.969* (.000)	.850* (.000)	1								
④	.756* (.000)	.496* (.000)	.696* (.000)	1							
⑤	-.336* (.000)	-.235* (.000)	-.297* (.000)	-.439* (.000)	1						
⑥	-.314* (.000)	-.229* (.000)	-.272* (.000)	-.404* (.000)	.919* (.000)	1					
⑦	-.320* (.000)	-.198* (.002)	-.286* (.000)	-.459* (.000)	.901* (.000)	.796* (.000)	1				
⑧	-.259* (.000)	-.221* (.000)	-.222* (.000)	-.276* (.000)	.862* (.000)	.715* (.000)	.693* (.000)	1			
⑨	-.274* (.000)	-.108 (.089)	-.266* (.000)	-.468* (.000)	.816* (.000)	.664* (.000)	.814* (.000)	.586* (.000)	1		
⑩	-.300* (.000)	-.260* (.000)	-.253* (.000)	-.325* (.000)	.855* (.000)	.773* (.000)	.661* (.000)	.746* (.000)	.539* (.000)	1	
⑪	-.343* (.000)	-.259* (.000)	-.320* (.000)	-.385* (.000)	.469* (.000)	.535* (.000)	.452* (.000)	.242* (.000)	.381* (.000)	.420* (.000)	1

\*p<.05, \*\*p<.01, \*\*\*p<.001

-①부모애착, ②의사소통, ③신뢰감, ④소외감, ⑤진로미결정, ⑥직업정보 부족, ⑦자기명확성 부족, ⑧우유부단한 성격, ⑨필요성인식 부족, ⑩외적장애, ⑪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4.2.2 모의 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

모의 애착,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애착은 진로미결정( $r=-.387, p<.001$ )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r=-.324, p<.001$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미결정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469, p<.001$ ).

그리고,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도 양상은 동일하였다(표 5).

#### 4.3 부·모의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부·모의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부의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2단계  $\beta=-.336 > 3$ 단계  $\beta=-.198$ )가 있었으며, 유의성도 검증되었다(Sobel test=-4.435,  $p<.001$ ). 또한, 모의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2단계  $\beta=-.387 > 3$ 단계  $\beta=-.263$ )가 있었으며, 유의성도 검증되었다(Sobel test=3.898,  $p<.001$ )(표 6).



(표 5) 모의 애착, 진로미결정,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r(p)										
①	1										
②	.915* (.000)	1									
③	.971* (.000)	.862* (.000)	1								
④	.749* (.000)	.463* (.000)	.679* (.000)	1							
⑤	-.387* (.000)	-.293* (.000)	-.369* (.000)	-.400* (.000)	1						
⑥	-.362* (.000)	-.282* (.000)	-.344* (.000)	-.364* (.000)	.919* (.000)	1					
⑦	-.368* (.000)	-.257* (.000)	-.359* (.000)	-.403* (.000)	.901* (.000)	.796* (.000)	1				
⑧	-.274* (.000)	-.237* (.000)	-.257* (.000)	-.240* (.000)	.862* (.000)	.715* (.000)	.693* (.000)	1			
⑨	-.398* (.000)	-.245* (.000)	-.393* (.000)	-.482* (.000)	.816* (.000)	.664* (.000)	.814* (.000)	.586* (.000)	1		
⑩	-.291* (.000)	-.252* (.000)	-.262* (.000)	-.272* (.000)	.855* (.000)	.773* (.000)	.661* (.000)	.746* (.000)	.539* (.000)	1	
⑪	-.324* (.000)	-.224* (.000)	-.299* (.000)	-.388* (.000)	.469* (.000)	.535* (.000)	.452* (.000)	.242* (.000)	.381* (.000)	.420* (.000)	1

\*p<.05, \*\*p<.01, \*\*\*p<.001

-①부모애착, ②의사소통, ③신뢰감, ④소외감, ⑤진로미결정, ⑥직업정보 부족, ⑦자기명확성 부족, ⑧우유부단한 성격, ⑨필요성인식 부족, ⑩외적장애, ⑪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표 6) 부모의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단계	변수		B	SE	β	p	R2
1단계	부 애착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348	.060	-.343	.000	.118
2단계	부 애착	진로 미결정	-.345	.061	-.336	.000	.113
3단계	부 애착	진로 미결정	-.204	.060	-.198	.000	.25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406	.059	.401	.000	
Sobel test statistic Z(p) : -4.435(.000)							
검증단계	변수		B	SE	β	p	R2
1단계	모 애착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355	.066	-.324	.000	.105
2단계	모 애착	진로 미결정	-.429	.065	-.387	.000	.150
3단계	모 애착	진로 미결정	-.291	.063	-.263	.000	.28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389	.058	.384	.000	
Sobel test statistic Z(p) : 3.898(.000)							

## 5. 논의

###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세 변인에 대한 관련성 검증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진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적인 개입 및 도움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여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진로미결정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13]. 이득연과 홍경자(2004)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 애착의 정도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주연과 하상희(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지지적 환경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부여 받고, 결정 및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진로 목표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탐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대학생이 긍정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탐색 및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부모 애착과 같은 심리적 지지 요인이 뒷받침 되어야 단계적인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아기 시절부터 부모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특성은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추구해 나가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Leong & Chervinko, 1996; 이재창, 최인화, 2006)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고, 최근 김민선(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고, 현실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의 격차에 대한 지각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고, 나아가 진로미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부와 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부·모 애착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관계에서도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기 이론가들이 주장한 부모로부터 사랑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 한다[14].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은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8], Anderson과 Perris(2000)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는 불안정한 성인 애착 패턴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와 모의 애착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향하는 인과구조에서 경로가 타당함을 시사한다. Ainsworth(1989)는 애착형성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유아와 양육자 간 의사소통 질이며, 이러한 애착관계는 개인이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기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 애착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부족하고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며,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와 모의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간접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 하였다. 이는 발달 과정 상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대학생은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 실수에 대한 반추적인 사고,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수행의 격차,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포함한 심리적 특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1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강해지고, 이는 개인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 등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진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2].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애착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라는 변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달 과정상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개인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 애착 형성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수록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부모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애착을 구분하여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을 진로미결정의 하위 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라는 각 하위변인들과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애착의 하위요인이 상호 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감을 고려할 때 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질수록 부모-자녀가 상호신뢰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부모에게 지지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은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로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었을 경우 자녀는 세

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념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이는 진로장벽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미결정 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발달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착’이라는 주제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로미결정자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고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직접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거쳐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애착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낮추고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이나 진로지도 개입 장면에서 대학생들이 진로미결정을 호소하는 경우 부·모와의 애착 관계 정도를 확인하고, 발달과정상 애착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연관지어 개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측면에서 개인내적 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 수준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믿고, 자유의지로 도전하며, 작은 일에도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을 충족하려는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대처할 수만 있다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들을 상담할 경우 먼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지각을 함께 점검해보고 이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진로사고를 확인하고, 수정하며,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사고로 바꾸는 다양한 활동들이 내담자의 부정적인 진로사고를 낮추고,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애 초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에 대한 개입이 상황적으로 어렵다면,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사

회부과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둔 상담 개입도 효과적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담자는 진로의 확신정도가 낮아 혼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든 대학생들을 상담 할 때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만을 접근하여 개입할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 및 부모와의 관계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밀도 있게 이해할 있도록 진로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내담자가 전공에 대해 흥미가 없거나, 원하는 직업을 생각해 내기 어려워하거나, 직업에 대한 생각들이 자주 바뀌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탐색하고 고려하여 통합적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5.2 제한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2년제, 3년제 대학의 재학생이나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소년 등 집단의 표집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학년 구별 없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가령 대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진로미결정은 진로발달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상태나 특성과는 다를 수 있다. 즉, 4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 비해 애착의 특성이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년별로 진로미결정자들에 대한 특성이나 관련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에 의한 설문지법으

로만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로 응답을 경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다.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나 진로미결정의 경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객관적인 표집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가족 변인 중 부와 모에 대한 애착만을 고려하였고, 부와 모의 학력과 경제력, 형제 유무, 형제 지위 등과 같은 가족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형식의 설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 피험자의 편향 등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대한 다차원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만을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외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References

- [1] Ginzberg, E.(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pp, 169-176.
- [2] 김민선(2014),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 적응유연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4), pp, 145-166.
- [3]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ume 1, Attachment(2nd ed.). New York : Basic Books.
- [4] Wright, S. L., & Perrone, K. M. (2008), The impact of attachment on career-related variabl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oposed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future resear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 pp, 87-106.

- [5] 임수진(2015),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2(3), pp, 349-363.
- [6] 손영미, 박정열(2020),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수준과의 관계 : 사회비교경향성,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 두려움의 다중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26(3), pp, 145-166.
- [7] 용래경(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 결정 수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김단비, 최바을(2019), “여대생의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6(4), pp, 27-47.
- [9] 신현숙, 정혜경(2019),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학업만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0(5), pp, 1087-1102.
- [10] 김계현,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pp, 311-333.
- [11]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pp, 449-468.
- [12] Barrow, J. C. & Moore, C. A.(1983), “Group interventions with perfectionist thinking”.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1, pp, 612~615.
- [13] 김하늬, 손은령(2020),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관련 변인 간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3(4), pp, 43-68.
- [14] Ha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pp, 27-33.
- [15] Enns, M. W., & Cox, B. J. (2002),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 sever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pp, 783-794.

### 민 경 인 (Kyung-In Min)



- 2022년 12월~현재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연구원
- 2011년 2월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
- 관심분야 : 진로, 청소년
- E-Mail : kimin@shinhan.ac.kr

### 조 성 심 (Sung-Sim Cho)



- 2011년 3월~현재 :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23~2024년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회장
- 2014~2018년 :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 협회장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군사회복지
- E-Mail : chawoo0606@shinhan.ac.kr